

한·미 FTA, 빅딜은 8차협상서

커틀러 “7차협상 성공적”...전자거래·상품 등 합의 농업·섬유 분야는 난항...8차협상 내달 5일 서울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14일 끝났다. 양측은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 ‘빅딜’까지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쟁점을 걸러내는 작업은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앤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성공적인 협상을 마쳤다 ”며 “진척하고 있는 도전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전망은 아주 좋다 ”고 타격 가능성을 높여줬음을 시사했다.

우리의 협상단 관계자도 “ 표면적으로 드러난 큰 성과는 없지만 물밑에서는 많은 작업이 이뤄졌다 ”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기간 일반 현안은 분과 회의에서 다루고 분과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국의 자동차 관세인하, 반덤핑 절차개선, 우리측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계 및 의약품 분야 제도 개선 등 문제는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했다.

특히 섬유,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는 서로 수정 양보안을 주고받았으며 상호 핵심 쟁점 분야에 양보할 의사를 교환했다.

우리의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 7차 협상의 목표는 당초 ‘빅딜’을 타결하기 보다는 절충점을 모색하려 했던 것 ”이라며 “ 협상은

패키지를 만들어 일괄 타결하게 된다 ”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 기간 분과회의에서도 일부 관세 개방안을 개선하는 등 진전을 이룬 전자상거래, 상품무역 등 분과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5일부터 한국에서 열릴 8차 협상은 예전보다 소규모 형태가 되고 분과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춘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분야는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열린 섬유분야에서는 미국이 섬유 개방(양허) 재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 기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도 미국은 우리측에 1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기대에 못 미쳐 우리측이 이를 곧바로 거부했다. 농업 분야도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워싱턴=연합뉴스



中春節 축하 ‘용춤 퍼레이드’ 중국 최대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 18일·설날)를 축하하기 위해 1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축제에서 군인들이 용춤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北 못믿는다” VS “日 고립 우려”

日 정지권 6자회담 결과 찬반 논란

일본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측지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미국 등과 다른 행보를 취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정지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정지권 일각에서 “일본의 이번 독자적인

자민당 의원의 “미국이 먼저 나서서 (북·미 국교정상화를) 해버리면 일본은 대응 수단이 없어진다 ”고 말했다.

자민당 아시아 외교·안보비전연구회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임원회의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대북외교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제체 전세가 빠르다. 핵과 납치 문제가 한 세트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건 안된다 ” “정부가 대북 정책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있다 ” 등의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이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北 김정일 65세 생일... 후계 구도는

레이덕 우려 후계 논의 금지

세 아들 동등한 조건...생전 권력이양 안할 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16일로 만 65세가 되면서 과연 다음 최고권력자는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74년 아버지 고(故) 김일성 주석이 만 62세 때 후계자로 공식 추대됐고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그동안 외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차남 김정철(26)이 후계자로 지명돼 그의 초상화가 사무실에 걸렸다는 등 온갖 설이 난무했지만 실제 승계와 관련한 움직임은 전무하다는 것이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대를 이은 혁명’을 줄곧 외쳐온 김정일 위원장은 60대 중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후계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후계자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권력의 중심이 후계자로 옮겨지고 실권을 내놓게 되는 레이덕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과정에서 김 주석의 급격한 권력 약화를 직접 경험한 만큼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고영희씨가 생존해 있을 때에도 고씨와 지지세력의 후계자 선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측근들에게도 “80세, 90세까지 일하겠다 ”며 권력이양 의 뜻이 없음을 여러차례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계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무관심’은 고씨의 사망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고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비서 출신인 김 옥(43)씨가 고씨 사망 직후 김 위원장과 동거에 들어가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김옥씨를 단순히 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정 전반을 함께 논의할 정도로 깊이 신임하고 있어 최근 김옥씨에 국정 전반에 더욱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특성상 언젠가 후계에서 김 주석의 급격한 권력 약화를 직접 경험한 만큼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들은 정남(36), 정철, 정운(23)이다.

김 위원장과 고(故) 성혜림씨 사이에 태어난 장남 정남씨는 개혁, 개방적인 사고로 김 위원장의 마음에서 멀어진다. 본인이 애당초 후계문제를 의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세 아들 모두 생모를 잃어 정치적 배경이 동등하다는 점에서 후계자 지명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모나리자 스트레스’ 루브르 직원들 파업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안내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모나리자를 비롯한 걸작들을 돌보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보너스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다.

안내원들이 매표소로 이르는 길을 봉쇄하는 바람에 이날 방문객들의 루브르 입장은 ‘공황’이 됐다.

인상주의 작품 등 19세기 미술품이 많이 걸린 오르세 미술관도 이날 문을 닫았다.

안내원들은 전신실에서 걸작들을 지키느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박물관의 다른 부서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보너스를 자신들에게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코이야기’ 美 법정 갈뒀

학무모회 ‘역사왜곡...소송권 제기’

일제 말기 한국인을 가해자,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해 한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요코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의 역사 왜곡 논란이 미국에서 대형 소송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의 한 유명 로펌은 ‘요코이야기’가 과거 역사를 왜곡했음을 뿐 아니라, 이같은 잘못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바른 아시아역사 교육을 위한 부모회(Parents For an Accurate Asian History Education)’의 의뢰에 따라 곧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욕에만 수 백 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이 로펌은 특히 사건을 무료로 맡기로 했으며, 책 내용의 불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

과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로펌의 한 변호사는 14일 “PAAHE측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무료 변호하기로 공식 결정이 내려졌으며 소송을 할 것 ”이라고 확인했다. “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 ”고 말했다.

‘바른 아시아사 교육 부모회’ 소속의 한 학부모는 “담당 변호사들이 ‘신성한(sacred)’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학교에서 가르침으로써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는데 소송의 초점을 맞출 것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 전했다.

이 학부모는 “로펌측이 법적 분석을 토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무료번호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안다 ”며 “아마도 미국에서 제기되는 아시아 과거사 관련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역사작’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천]	비고
[아파트]					
2006타경 14081	1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040 삼신파크빌 101동 15층 1501호 84.9209㎡	아파트	90,000,000	90,000,000
2006타경 14579	1	목포시 연산동 1262 연산중공2단지아파트 201동 15층 1507호 58.14㎡	아파트	46,000,000	46,000,000
2006타경 14944	1	무안군 무안읍 선남리 811-6 서리야파트 102동 6층 608호 59.985㎡	아파트	46,000,000	46,000,000
2006타경 15374	1	목포시 산정동 1278-2 거성빌빌 101동 3층 305호 84.67㎡	아파트	83,000,000	83,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06타경 10195	1	목포시 죽동동 86-20 80㎡	대	22,218,800	실거래액. 제1외 동소 86-20 46.28㎡ 제1외 다중도실 동 1 5.1㎡
2006타경 12726	1	신안군 지도읍 출내리 183-5 172㎡	제1외	21,778,000	실거래액. 제1외 학교일직앞길 등 24.8㎡
2006타경 13608	1	목포시 용당동 964-107 56㎡	제1외	33,484,700	실거래액. 제1외 동소 183-5 65㎡
2006타경 14401	1	목포시 산정동 1329-15 200.6㎡	대	114,157,550	실거래액. 제1외 동소 1329-15 1층 96.19㎡ 2층 81.15㎡ 지하실 4.95㎡ 부속건물 광 2.97㎡ 제1외 학교 등 23.3㎡
2006타경 17974	1	목포시 산정동 1643-1 165.7㎡	제1외	86,487,120	실거래액. 제1외 일리실 등 3.0㎡ 동소 1643-1 1층 93.78㎡ 2층 59.95㎡ 부속건물 화장실, 싱크 2.5㎡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06타경 13942	1	영광군 학산면 굴계리 1289-5 궁전아트빌 1기 3층 303호 77.71㎡	빌라	45,000,000	45,000,000
2006타경 15534	1	목포시 대양동 110-10 4층 401호 75.225㎡	다세대	62,000,000	62,000,000
2006타경 17899	1	영광군 영암읍 석리 신15 영광파크원빌주 1동 1층 101호 91.58㎡	사무실	40,000,000	40,000,000
[대지/임야/전답]					
2006타경 5353	1	신안군 비교면 수치리 산163 14731㎡	임야	8,838,600	8,838,600
2006타경 5651	1	영광군 학산면 신덕리 산137 34116㎡	임야	20,489,600	20,489,600
2006타경 9201	1	함평군 학교면 곡평리 483-1 9300㎡	임야	30,690,000	30,690,000
2006타경 11894	1	영광군 시흥면 신학리 1634 1835㎡	답	10,64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0,643,000
2006타경 12962	2	목포시 용당동 854-16 39㎡	전	11,700,000	11,700,000
	3	동소 845-15 42㎡	전	1,5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512,000
		동소 1202-2 90㎡	대	29,700,000	29,700,000
매각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천]	비고
2006타경 13944	1	신안군 자은면 유곡리 182 1914㎡	전	6,890,400	농지취득자격증명 6,890,400
	2	동소 204 327㎡	전	1,275,300	농지취득자격증명 1,275,300
	3	동소 673-1 1359㎡	전	4,348,800	농지취득자격증명 4,348,800
	4	동소 715-1 833㎡	전	1,498,500	농지취득자격증명 1,498,500
	5	동소 744 1488㎡	전	4,910,400	농지취득자격증명 4,910,400
	6	동소 781 1806㎡	답	5,194,800	임괄매각, 농지취득소 782 919㎡
	7	동소 783 1339㎡	전	3,213,600	농지취득자격증명 3,213,600
2006타경 13729	1	함평군 순남면 대전리 675-2 1457㎡	답	65,58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65,585,000
2006타경 13927	1	영광군 시흥면 구산리 1722 4950㎡	답	36,13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6,135,000
2006타경 14188	1	신안군 함해면 분대리 777-13 2001㎡ [이전 석지번 2001외661 전부]	답	8,59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8,593,000
2006타경 14241	1	신안군 활곡면 당고리 405 1769㎡	전	7,980,500	농지취득자격증명 7,980,500
2006타경 14654	1	동소 987 1187㎡	전	5,398,500	농지취득자격증명 5,398,500
	2	동소 408-1 1279㎡	전	6,38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6,385,000
	3	동소 183-5 65㎡	대	33,484,700	실거래액
2006타경 15138	1	신안군 송도면 방축리 1 1785㎡	답	4,059,500	농지취득자격증명 4,059,500
	2	동소 217-1 2992㎡	답	11,9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1,958,000
2006타경 15640	1	영광군 시흥면 대간리 112 1467㎡	전	11,3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06타경 15657	1	동소 112-1 45㎡	전	11,3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217-1 2992㎡	답	11,9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1,958,000
2006타경 16254	1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90-2 2600㎡	답	20,0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020,000
	2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1120-4 3000㎡	답	22,5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2,500,000
2006타경 16254	1	함평군 나산면 삼곡리 622-8 2313㎡	답	17,347,500	농지취득자격증명 17,347,500
	2	무안군 일로동 지중리 142-4 2916㎡	전	43,7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43,740,000
2006타경 16322	1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29 873㎡	답	35,625,600	임괄매각, 농지취득소 29-2 5181㎡
	2	신안군 지도읍 양촌리 117-5 3234㎡	답	19,4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19,404,000
2006타경 16322	1	신안군 하의면 아른리 산114 1161㎡	임야	4,440,200	임괄매각, 목축2 동소 29-2 5181㎡
	2	동소 29-2 5181㎡	임야	4,440,200	임괄매각, 목축2 동소 29-2 5181㎡
2006타경 16445	1	영광군 영암읍 학곡리 999-2 608.3㎡	답	5,170,550	농지취득자격증명 5,170,550
	2	동소 1001-5 2210.7㎡	답	19,896,300	농지취득자격증명 19,896,300
2006타경 16490	1	신안군 지도읍 의리리 산6-1 7041㎡	임야	3,520,500	3,520,500
	2	동소 산123-2 5950㎡	임야	2,975,000	2,975,000

200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세창